

우리가 만드는 비교과프로그램 “우만비” 공모전 계획서

구 분	내 용					
해당 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학생 학습지원		<input type="checkbox"/> 진로·심리상담지원		<input type="checkbox"/> 취·창업지원	
프로그램명	나의 소신은 <input type="checkbox"/> 이다.					
핵심역량 (%)	C(창의성)	H(휴머니즘)	A(능동성)	N(공동체)	G(글로벌)	E(전문성)
	30	10	25	20	5	10
추진 배경	대학교가 단순히 높은 학점을 따고, 취업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닌, 낭만과 지성이 존재하는 곳이고,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색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취업이나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합격하기 위해, 잘 보이기 위해 쫓기듯 준비하는 일회성의 내 이야기가 아닌, 진솔하게 나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말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충북대학교 비교과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어떠한 정보를 주기 위함 또는 자격증을 따기 위함 또는 마음, 심리 등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대다수이다.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거나 비교과프로그램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은 많이 찾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학생들에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와 동시에 스피치 기술 또한 배울 수 있다.					
	현재 취업을 위해 복수전공, 다전공, 부전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추세이며 학교에서도 융합전공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다른 과 학생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또한 부족하다.					
	교과과정에서 하는 발표는 보다 수동적이며 주제가 정해져 있는 (전공이든 교양이든) 수업 관련 발표가 다수이다. 대학생들이 대학교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주체적으로 할 기회가 거의 없으며, 이에 어려움을 느낀다. 교과과정에서 평가받기 위해, 교수님이 평가하는 발표가 아닌 청중을 위한, 청중에게 집중하는 발표를 할 기회도 없다.					

	<p>“최근 <뉴욕타임스>는 '올해의 최고 대입 에세이'를 선정해 기사화했다. 대입을 앞둔 미국 고등학생들의 자소서 가운데, 훌륭한 몇 편을 골라 소개한 것이다. 여기서 선정된 에세이는 대한민국 취준생들의 자소서와는 사뭇 다른 것이 눈에 띈다. 담백하고 평범한, 자신의 가치관을 솔직하게 드러낸 글이 미국 대학 입학사정관들에게 후한 점수를 받았다.”</p> <p>cf.)</p> <p>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38651?no=138651&ref=nav_search#0DKU</p>
목적 및 필요성	<p>1. 토크콘서트(토크버스킹)는 유명한 사람들만 할 수 있다는 편견을 깨고 우리도 우리의 공간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한다.</p> <p>2. 지식사회 속 성장하는 강연시장, 이러한 사회에서 내 생각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은 중요하다. 오직 나만의 스토리를 찾고 이를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말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p> <p>3. 천편일률적인 스펙형 끼워 맞추기 스토리보다 자신만의 고유한 스토리 만든다. 이 스토리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다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발표능력으로 표출한다.</p> <p>4.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말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 발상력, 설득력, 어휘력, 설명력, 표현력, 창의력, 이해력, 논리력 같은 다양한 능력이 수반된다. 종합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발표능력을 키워야 한다. 발표를 잘 해낸다는 것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p> <p>5. 자신의 전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복수전공, 다전공, 부전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며 준비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한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교수님과의 상대적 거리감을 줄인다.</p>
세부 추진 계획	<p>1. 신청방법</p> <p>1. 충북대학교 씨앗 및 단체 문자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p> <p>2. 가장 많은 학생의 선택을 받은 상위 5개의 단과대에서 교수님을 섭</p>

	<p>외한다.</p> <p>Ⅱ. 프로그램 일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을 피해서 진행한다. 2. COVID-19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한다. <p>Ⅲ. 프로그램 세부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생그래프 <p>학교에서 강사초빙이 필요하다.</p> <p>인생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배우고 이를 통해 나의 삶을 전체적으로 조망해보고 나만의 스토리 초석을 쌓는다. ->진로상담, 심리상담기법이기도 함</p> 2. 글쓰기 발표 코칭 <p>충북대학교 창의융합교육본부 의사소통센터에서 글쓰기 및 발표 코칭. 자신을 드러내는 에세이를 작성하고 이를 피드백 받는다.</p> 3. 버스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수님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수님의 이야기 <p>(1-1) 개신문화관 지하광장에 마이크 하나를 두고 학생들처럼 교수님들이 발표자가 되어 광장 중앙에서 ‘나의 소신은 □ 이다.’ 라는 주제로 “토크 버스킹”을 진행한다.</p> <p>(1-2) 교수님은 왜 이 전공을 택하셨고, 교수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학생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펼친다. (다양한 전공의 교수님 이다보니 가볍게라도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평소에는 듣지 못했을 교수님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p> <p>(1-3) 참여하는 학생들은 이를 통해 다양한 전공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교수님이 전공을 택한 이유가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또한 타인의 발표를 경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소신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주체적으로 듣는 자세를 배양할 수 있다.</p> (2) 질의응답 시간 - 본 프로그램을 위한 교수님 초청 과정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품을 통해 원하는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을 미리 조사한다. 이때 질문은 익명으로 진행되어 청중(학생)들이
--	---

보다 적극적으로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익명이 아니면 하기 힘든 다양한 유형의 질문들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추진계획



그림1. 질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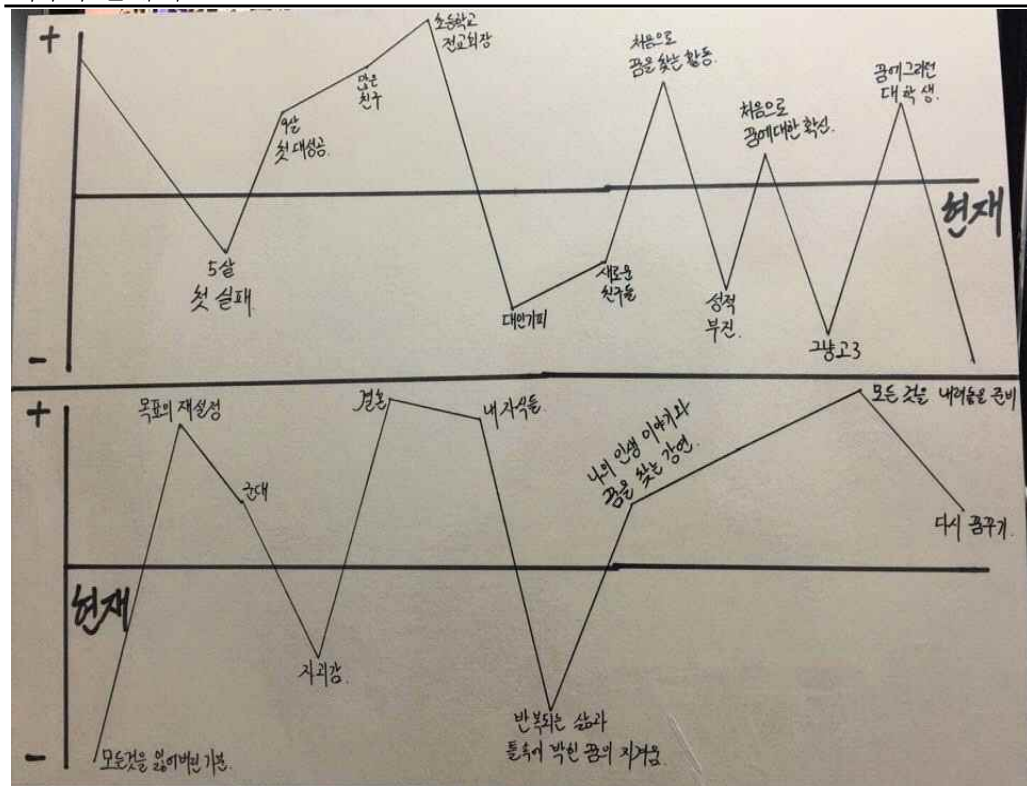
2) 학생편

(1) 학생의 이야기

(1-1) 자신의 고유한 스토리텔링 과정으로 인생 그래프 그리기, 읽었던 책 정리하기 등 나의 인생에서 기념비적인일, 사소한 일을 모조리 꺼내서 인생의 키워드를 스크랩한다.

[illegible]

7/25/2017



	<p>다.</p> <p>(1-3) 이를 바탕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에세이를 작성한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지금 나는 무엇을 하는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등 인생의 스토리가 담긴 논리적인 에세이)</p> <p>(1-4) 1-3의 에세이 첨삭과 이를 바탕으로 한 발표를 학교에서 코칭한다.</p> <p>(1-5) 위의 내용이 준비되면 충북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자신의 스토리를 버스킹 형태로 발표한다. (개신문화관 광장 등)</p> <p>(JTBC ‘말하는 대로’ 참고 https://youtu.be/6Elm2mChF0s)</p> <p>(2) 질의응답 시간 - 발표자 개인이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즉석에서 청중들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p> <p>4. 추가사항</p> <p>1) 학생편 1-1의 스토리텔링과 1-3, 1-4의 코칭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생들에 한해 1-5의 버스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p> <p>2) 각 프로그램 당 씨앗 마일리지를 부여한다.</p> <p>+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학생들에 한해 씨앗 마일리지를 부여한다.</p> <p>3) 기존 글쓰기 및 토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충북대학교 창의융합 교육본부 의사소통센터에서 글쓰기 및 발표를 코칭한다.</p> <p>4) 총학생회와 협력하여 ‘JTBC의 말하는대로’ 처럼 홍보 및 장소를 마련한다.</p>
기대 효과	<p>1.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능동적인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만의 고유한 스토리를 찾는 기회가 마련된다. 이러한 스토리는 취업 및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스펙이 될 수 있다.</p> <p>2. 자신의 생각(소신)과 프로그램을 통해 찾은 스토리를 여러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자신감과 발표능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청중의 입장이 되어 올바르게 경청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다.</p> <p>3. 다양한 분야에 계신 교수님들의 스토리를 통해 융합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다전공에 관심을 가져 융합인재로 자라날 수 있으며, 타전공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을 높일 수 있다.</p> <p>4. 학교 속에서 무한경쟁에 지친 청춘들에게 위로와 공감,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여 진정한 대학교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p>

	<p>게 한다.</p> <p>5. 개신문화관 광장 등에서 진행하는 본 프로그램을 충북대학교 유튜브 및 SNS에 업로드하여 학교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다.</p>
--	--